

Governance Opinion

< 에프티이앤이의 외도 >

코 스닥 상장기업 에프티이앤이의 주된 사업은 나노 섬유를 사용한 각종 섬유와 필터 제품의 개발 및 생산과 에너지 사업으로 나뉜다. 에프티이앤이의 나노 사업 부문은 세계 최초로 나노 멤브레인의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나노 멤브레인은 초고효율필터, 스포츠 및 레저웨어 용품, 탄소소재 및 이차전지소재, 특수 의료용 섬유소재 등의 원재료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에프티이앤이 사업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 사업 부문은 축냉식 냉방 시스템이다. 이는 값싼 심야 전력을 이용하여 심야시간에 냉동기를 가동하여 축열조에 얼음 또는 차가운 물을 저장한 후 다음 날 낮 시간에 냉동기의 가동 없이 저장된 냉기를 이용하여 냉방을 하는 시스템이다.

에프티이앤이는 전기방사 나노섬유 대량생산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수한 연구 인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적 우위 등을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프티이앤이의 최근 실적은 다소 초라하다. 에프티이앤이의 개별 재무제표 기준 최근 실적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분	2017. 6월말	2016년	2015년
매출	11,709,946	27,565,193	30,129,137
영업이익	-3,784,404	983,869	-22,029,576
당기순이익	-7,162,805	-4,191,739	-32,859,169

위의 표에서와 같이 최근 에프티이앤이는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에프티이앤이는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목적으로 약 377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거듭된 실적 부진으로 기업 가치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회사가 전격 단행한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주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에프티이앤이의 외도

에프티이앤이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은 나노섬유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캐나다와 필리핀의 자회사와 벽지임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에프티벽지 등이다. 이들은 모두 에프티이앤이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에프티이앤이는 종속기업 투자자산으로 약 171억원을 계상하고 있다. 자산 총계가 약 97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자산의 약 17.5% 수준이다. 이들 자회사들은 에프티이앤이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대체로 실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그런데 다소 눈에 띄는 부분은 다름아닌 에프티이앤이의 기타의 특수관계법인이다.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에프티이앤이가 공시한 기타의 특수관계법인은 하이니티와 피엘케이인터내셔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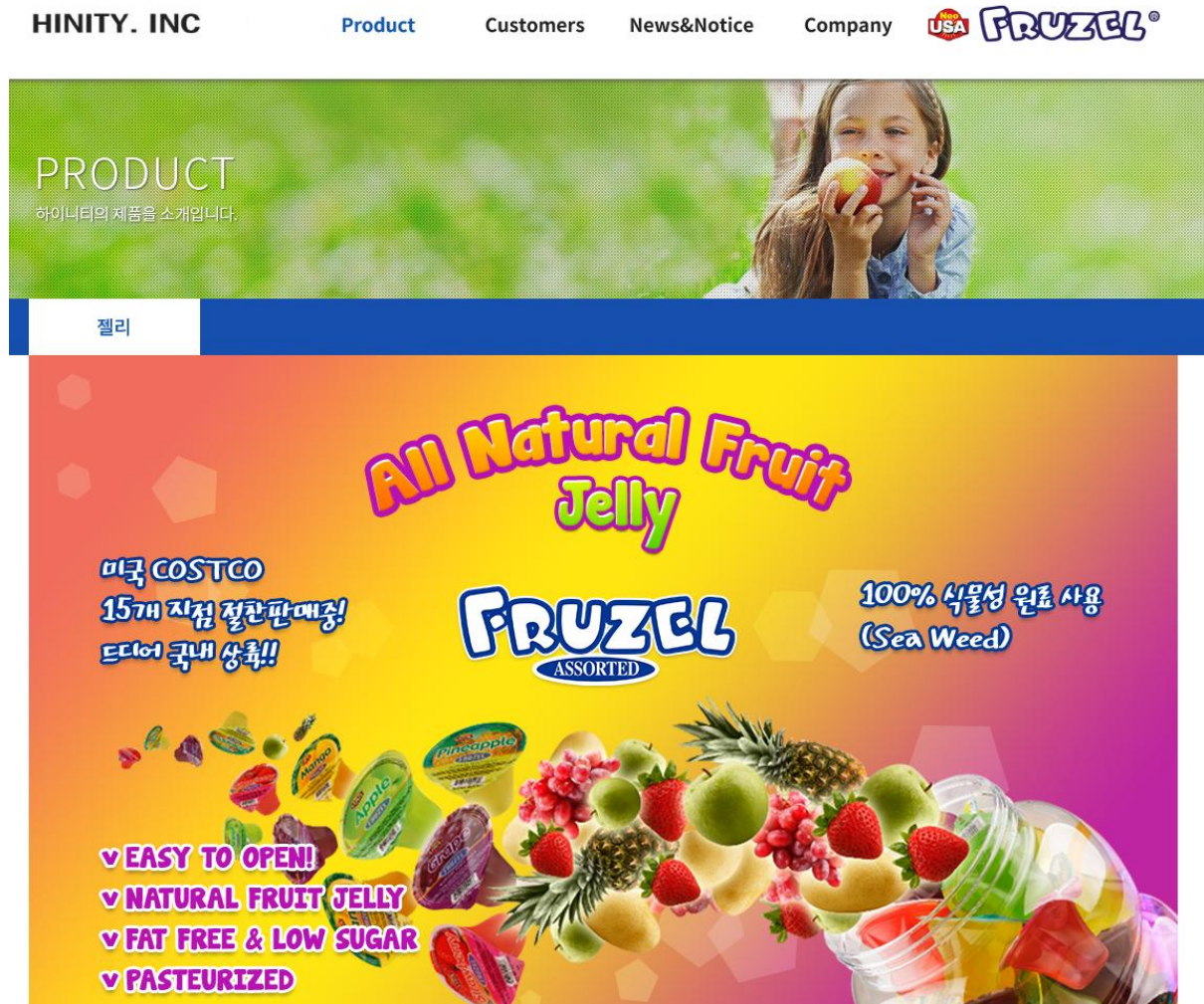
2017년 상반기 동안 에프티이앤이는 하이니티로부터 약 6억원의 매입 거래를 수행하였으며, 이와는 별개로 하이니티로부터 유형자산을 매입하는데 11억원을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에프티이앤이는 하이니티에 대해 약 21억원의 단기대여금을 제공하고 있다. 에프티이앤이와 그 종속법인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면 하이니티에 대한 단기대여금 총액은 77.4억원으로 증가한다. 에프티이앤이 및 그 종속법인들이 하이니티에 제공한 단기대여금 규모는 적지 않은 수준이다.

그런데 정작 에프티이앤이와 하이니티는 그 어떤 지분 관계도 없다. 하이니티의 소유 구조는 베일에 쌓여 있다. 다만 에프티이앤이와 하이니티의 관계가 상당함을 추정해볼 수 있는 여러 단서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우선 하이니티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3-1이다. 이는 에프티이앤의 본점소재지와 동일하다. 그리고 하이니티의 과거 대표이사는 박종만 등이다. 박종만은 에프티이앤이의 등기임원이며 에프티이앤이 지분 2.1%를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박종만은 에프티이앤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박종철의 동생이다. 과거 하이니티의 경영을 맡은 인물은 에프티이앤이와 상당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현재 하이니티의 이사는 조재금 단 1명 뿐이다. 에프티이앤이와 조재금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에프티이앤이 및 그 종속기업들은 77.4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하이니티에 제공하였으며, 하이니티의 경영은 하이니티의 유일한 이사인 조재금이 맡고 있다. 에프티이앤이와 그 종속기업들이 제공한 77.4억원 역시 하이니티 이사회의 유일한 구성원인 조재금의 선택에 따라 사용될 것이다.

2012년 12월 설립된 하이니티는 설립 당시 섬유 원단 유통업 등 에프티이앤이와 다소 관련성이 있는 사업목적으로 가지고 출발했다. 하지만 2015년 2월 식품, 음료 등의 도소매 등 다소 낯선 사업 목적들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하이니티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 하이니티의 제품은 젤리 뿐이다. 2015년 8

월 하이니티는 미국 식품 회사와 독점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젤리를 수입하여 국내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이니티 홈페이지 발췌>

에프티이앤이의 주주 입장에서는 다소 허탈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에프티이앤이는 나노섬유 등 첨단 기술을 자랑하고 있다. 에프티이앤이의 이러한 탁월한 기술력 덕분에 거둬들인 실적 부진 속에서도 주주들은 에프티이앤이의 기업가치를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젤리 수입 회사에 에프티이앤이와 그 종속기업들의 자금 77.4억원이 투입된 셈이다. 나노섬유와 젤리의 조합이 낯설 따름이다.

에프티이앤이의 또 다른 기타의 특수관계법인은 피엘케이인터내셔널이다. 에프티이앤이와 피엘케이인터내셔널 사이의 눈에 띄는 거래는 2016년의 거래로 2016년 상반기에 에프티이앤이는 피엘케이인터내셔널에 대해 약 17.2억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그런데 이는 전액 외상매출금이었다. 그리고 외상매출

금은 2017년 1분기에 12.4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17년 6월말 0원이 되었다. 즉, 에프티이앤이는 2016년 상반기에 피엘케이인터내셔널에 대해 약 17.2억원을 판매하였지만 6개월 이상 대금을 회수하지 않았으며 2017년 1분기가 되어서야 약 4.8억원을 회수하였으며 2017년 2분기에 나머지 12.4억원을 회수한 것이다. 거래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에프티이앤이가 피엘케이인터내셔널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 상당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피엘케이인터내셔널과 에프티이앤이의 관계 역시 앞서 살펴본 하이니티와 같이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다. 다만 과거 피엘케이인터내셔널의 이사회 구성에서 에프티이앤이와의 관계가 엿보인다. 피엘케이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박이근은 에프티이앤이에서 IR를 맡았던 임원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현재 피엘케이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는 조선아로 앞서 하이니티의 조재금과 마찬가지로 에프티이앤이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인물이다.

에프티이앤이의 주주들은 에프티이앤이의 탁월한 기술력을 신뢰하고 있으며, 최근의 실적 부진과 기업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머지않아 에프티이앤이가 진가를 발휘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에프티이앤이의 경영진 역시 에프티이앤이가 처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시장과 주주들에게 자금 수혈을 요청하고 있다.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양분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에프티이앤이의 대규모 유상증자 역시 일정 부분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해 분명 필요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현재 에프티이앤이가 최선을 다해 효과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회사의 자금 운용이 시장과 주주들로부터 충분히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진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